

익산「대왕릉은 마한 태조 무강왕릉」이다!

대왕릉 발굴조사 짜맞추기식 중간결과 발표 불신
무강왕릉 수호대책위원회 구성 및 강력 대응기로... 회장단 결의

대책위원장에 팔봉왕릉충진회 광운회장 선임

중앙충진회(회장 추태)는 지난 9월 18일 11시 중앙충진회 회의실에서 동석회장, 강회장, 철호회장, 광수회장을 비롯 종파문중 및 광역시도회장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18-3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익산 대왕릉 발굴조사에 따른 현황보고를 통해 지난 7월 대왕릉에서 발견된 인골을 분석한 결과 백제 무왕릉에 가깝다는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발굴조사 중간결과 발표는 수년전부터 이어온 익산시 주도의 짜맞추기식 결과보고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무강왕릉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에 팔봉왕릉충진회 광운회장을 선임한 후 중앙회를 중심으로 전 종파문중 및 지역충진회와 힘을 모아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장학기금 확충, 임원 정비, 뿌리공원 조형물 개수, 노트북(소책자) 발간 사업 추진 등 종사 현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추진방안을 결의하였다. <관련기사 2면·3면·7면·8면>

추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대처하여 피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뒤편에 반가움을 표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익산 대왕릉 발굴조사에 따른 대응과 대책을 비롯해서 주요 현안과업 추진에 관한 현황 보고와 일사 분란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

고자 함이다.

특히 익산 대왕릉 발굴조사에 따른 중간결과 발표는 익산시와 발굴단의 짜맞추기식 진행으로 전개되는듯 함에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바 회장단의 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한 고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익산시 팔봉면 석왕동에 소재한 익산 쌍릉은 사적 제87호(지정면적 1만 3,884㎡)로 2개의 봉분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 쌍릉이라 불리며 북쪽의 것을 '대왕묘' 남쪽의 것을 '소왕묘'라 하는데, 대왕묘는 무강왕릉(武康王陵), 소왕묘는 왕비릉으로서 청주한씨문중에서 매년 음력 3월 15일 춘계제향을 봉행해 오고 있다.

익산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마한·백제문화연구소를 통해 백제 무왕릉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전주박물관은 대왕릉 출토품을 통해 신라시대의 젊은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피장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문화재청의 허가로 익산시와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2017년 10월부터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굴 시 관대위에서 발견(4월)된 인골함의 인골을 분석한 결과 백제 무왕릉에 가깝다는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주한문과 관심 있는 다수의 학계 관계자로부터 강력한 반향과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무강왕릉 (사적 제87호 · 익산시 석왕동 산55)

한편 연구소 측은 진행 중인 대왕릉 보완조사와 앞으로 진행할 소왕릉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익산 쌍릉의 성격과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가적인 인골 심화 연구 등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훌륭한 어머니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오고, 훌륭한 스승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교육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민족경전 삼륜(三倫)에 사정도경(師正徒敬)이란 말이 있다.

깊이 숙고해주기 바란다」는 글을 인용

하면서 그 의미와 뜻을 마음에 새겨 현명한 판단을 새삼 강조하고 기대해 본다.

무강왕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41세 애왕(哀王)이자 삼한(三韓)중 하나인 마한국(馬韓國)을 세운 태조(太祖)이며, 마한 말년의 8세 원왕(元王)의 둘째 아들 우랑(友諒)이 상당(上黨)한씨(청주한씨)가 됨으로써 청주한씨의 선조가 된다. 따라서 청주한씨는 왕족의 후예로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족(三韓甲族)이며 명문중의 명문이다.

원왕의 장남 우평(友平)은 북원(北原) 선우(鮮于)씨가 되고 3남 우성(友誠)은 덕양(德陽) 기(奇)씨가 되었다.



을 무술년 시조 세향봉행일은 양력 11월 8일 둘째 주 목요일

청장년 · 청소년을 포함 남녀노소 수많은 후손들이 참석하도록 독려바라

楸泰중앙회장, 전국 청주한문 종파·지역 임원 및 어르신 분들의 독려 당부

시조 태위 위양공부군의 무술년 시향 봉행일은 11월 8일 (음력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중앙충진회 제26대 회장으로 선임된 후 처음 맞는 해로서 “젊은 후손들에게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주

고, 종사 계승과 함께 송조돈종(崇祖敦宗)의 값진 덕목을 체득하고 느끼는 좋은 기회이자 100만 청주한문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농서화대전 전시회장소인

무농정(충북기념물 제85호)과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의 시조탄생유지 청한각(淸韓閣)을 참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신다면 명문 청주한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도 더욱 고취될 것입니다.

종파문중과 시도의 회장단 및 임원 등

여러 어른들께서는 오는 11월 8일에 봉행되는 시조세향에 청장년 · 청소년을 포함 한문의 후손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함께 대동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 활성화·기금확충에 다 같이 동참 합시다』

훌륭한 후손을 육성하는 장학기금 조성은 가장 값진 유산
제1의 숙원 과업인 중앙회관 확보를 위한 기반으로...



3차 회장단회의에서 추태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추태 중앙회장 회장단회의에서 다짐 및 동참 독려

중앙종친회(회장 柳泰)는 지난 9월 18일 오전 11시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제3차 회장단회의를 통해 현재 30억 원의 장학기금을 32억 원

이상으로 확충하는 방안과 이의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와 결의를 하는 한편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 종원의 동참과 성원을 독려하고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추태중앙회장은 지난 3월 중앙회장

의 직책을 맡은 이래 장학기금 조성 확충 및 활성화 사업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업으로서 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32억 원 이상을 조성한 후 내년도 중에 시조묘역에 장학기금 조성 기념비를 새로이 수립할 계획이다(기존 20억 달성 기념비는 오류로 폐기 매립).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값진 유산이다. 종파문중 및 광역시도회장을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종원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100만원 이상 출연자는 기념비에 각 명되고 기록유산으로 기리 후손에게 전해지는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사업이다. 국·내외 독지일가분들을 찾아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50억 이상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중앙회의 최대 숙원과업인 중앙회관 확보를 위한 초석의 기반으로 다져나가고자 한

다. 장학기금은 현재 약 30억 원 정도로 증액 조성하였지만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는 부족함이 있다.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현재 금리가 조금 상승되었다고는 하지만 년 2%수준 이하로 하락하였다. 저축은행에 안전하게 분산예치를 통해 과실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장학금 지급 재원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족한 수준이다. 중앙회관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종사운영은 물론 장학사업을 운영하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임기 동안 장학기금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임원분들과 힘을 모아 실현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가 있으면 실행이 가능하리라 본다. 훌륭한 회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혜를 모아 기금확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거듭 당부를 하였다.

길수회장 장학기금 2천만원 출연 값지게 사용하고파 임대보증금 출연 누적 1억 3천만원



길수서원군파회장 <사진>이 지난 8월 장학기금 2천만원을 출연하여 누적 1억 3천만원을 실현하였다. 길수회장은 보유 중인 상가가 장기간 공실로 있어 고심하던 중 다행스럽게 임대계약이 체결됨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코자하는 마음을 담아 후학을 육성하는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였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이에 추태이사장은 후일 값아야하는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선뜻 출연해주심에 큰 감사와 존경을 표하였다.

장학기금 출연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 009-25-0015-377

◇ 예 금 주 : (재)청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납입 방법-

• 계좌송금

국민은행 009-25-0015-377.
예금주 (재)청한장학회

• 지로송금

무 정액 지로용지 이용 (종보 첨부)
청한장학회 기금납입용

• 방문납입

중앙종친회 사무실 방문 및 납입

서원군파종친회 정기이사회 개최

서원사 정비사업 등 현안 논의

서원군파종친회(회장 吉洙)는 지난 9월 5일 오전 11시 종로구 관수동소재 은행나무집에서 길수회장을 비롯 상완고문, 강, 상기, 기일, 만고, 상청, 상영회장 등 회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회의에서는 경과보고에 이어 시향 결산보고와 서원사 정비사업 등 종사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와 시행방안을 결의한 후 30년 전부터 이어진 서원군파종회의 조직 기반을 바탕으로 세세년년 찬란하게 계승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길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날씨가 불순한 환절기임에도 경향각지에서 성황을 이루어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전하고, 문중의 구심점인 서원사가 종현분들의 성원으로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는 위대하신 서원군 할아버지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자부한다. 앞으로 문중회의는 정기총회, 이사회 등 년 4회로 하여 종사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회의로 운영하고자 한다. 100여명이 참석한 지난 정기총회에서 “서원군할아버지의 훌륭한 많은 후손들이 함께 모여 화합 단결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는 추태중앙회장의 인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길수회장

길수회장, 종사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회의로 운영
서원군파종회 30년 역사의 기반, 세세년년 찬란하게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사말을 상기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힘을 모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상완고문은 시조부군의 전기(傳記)가 없음에 애석함을 표하고 필히 전기가 편찬되기를 기원하는 한편 청주한문의 인재육성에 힘을 기우려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이어 상영부회장은 오직 현성금만으로 서원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길수회장께 경의를 표하고, 최근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이래 유일하게 의정부시의 지원을 받아 방범 펜스 등 관리시설을 설치한 청원위부군과 의혜공주 묘역의 고유제 봉행에 많은 감사와 독려를 당부하였다.

추태회장, 범덕청주시장·영동군수 예방 및 환담

취임 축하 및 지방유적 보수유지 지원 등 현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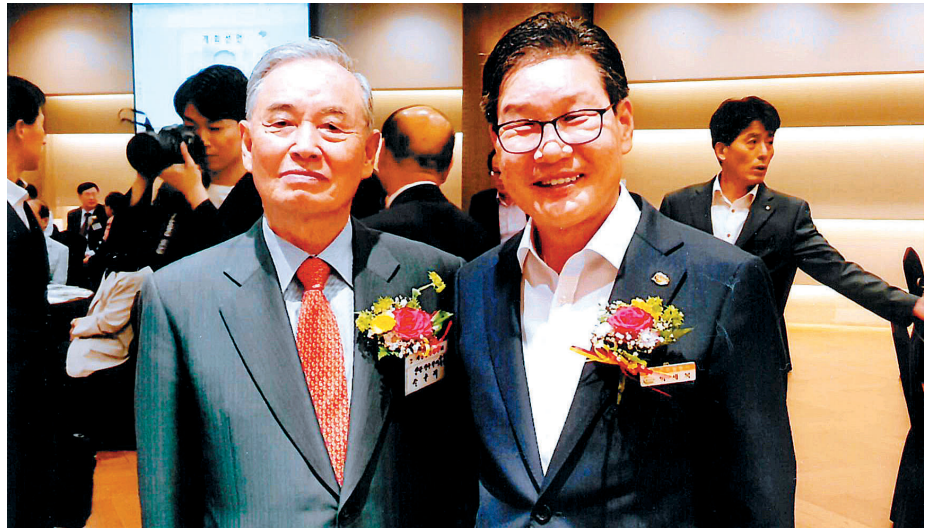


범덕 청주시장 예방(사진좌측부터 장훈회장, 추태회장, 범덕시장, 현구회장)

중앙종친회 추태회장은 지난 8월 1일 장훈충북회장, 현구청주회장과 함께 범덕 청주시장을 예방하고 축하와 환담을 나누었다.

훌륭한 치적으로 청주한문의 명예를 더

욱 빛내주기 바란다는 상호 간 축하와 덕담에 이어 관내 소재 지방문화재와 유적으로 지정된 세일재 등의 보수유지 지원에 대한 추태회장의 협조요청에 관계부처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한 지원방안 강구 등



박세복 영동군수(오른쪽) 예방

중사 현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한편 지난 7월 2일에는 충북 영동군 박세복군수를 예방, 취임을 축하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추태회장은 영동군 난곡리 소재 청주한

씨 시조부군의 태생지를 성역화한 “청한각”의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박세복군수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무강왕릉 수호대책위원회 개최

추진위원 선임 및 추진방안 등 심도있게 논의



무강왕릉 탐방 및 발굴단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

무강왕릉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광운) 1차 회의가 지난 10월 18일 오전 11시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승남감사, 만교, 갑수, 태락, 연동, 인식 회장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고문, 부위원장, 추진위원 선임을 통해 조직을 정비한 후 익산시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무강왕릉을 수호함에 중앙회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종원이 힘을 모아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추태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강왕릉을 수호하는 일은 상당기간 전부터 기획하고 주도해온 관(官)을 상대로 하는 힘든 여정이지만, 기필코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결해야만 할 중대한 과업이기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 동참해 주시는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는 한편 위원회에 거는 역할과 기대가 크다. 중앙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소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열정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당부와 결의를 다졌다.

만교부위원장은 중차대한 직책을 맡은

만큼 함께 의견을 모아 법률적인 문제 등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서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추진위원회 위원선임

• 고문-추태(중앙회장), 강(전사숙공추모회장)

• 감사-승남(중앙회감사)

• 위원장-광운(팔봉왕릉종친회장)

• 부위원장-만교(장도공파회장), 인식(팔봉부회장), 동수(문간공파회장), 갑수(대전회장), 태락(대구경북회장)

• 위원-선교(충성공파회장), 연동(판관공파회장), 일용(사숙공추모회총무), 의구(청한예학회부회장), 경수(팔봉총무), 윤수(옥구총무), 범구(예학회총무), 만구(예학회)

한편 지난 9월 19일에는 추태중앙회장, 광운팔봉회장, 만교회장, 선교회장, 태락회장, 영교회장, 승남감사 등 17명이 무강왕릉 발굴현장을 찾아 관대 개관을 참관한 후 발굴단장과 면담을 통해 청주한문의 입장과 주장을 강력하게 재차 전달하였다. 발굴단장은 앞으로도 청주한문의 입장을 존중하고 발굴사업 진행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기호 (전)중앙회장 국립나주박물관 탐방

제4회 마한문화축제 10월 19부터 3일간 개최



국립나주박물관 방문기념(중앙우측 기호회장)

마한 역사자료 수집 차

기호 (전)중앙회장은 승남감사, 동석회장 등과 함께 지난 8월 마한의 역사자료 수집 차 국립 나주박물관을 탐방하였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영산강유역에 남아있는 고고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며 호남지역

발굴 매장문화재에 대한 수장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4년 전 전원(田園)속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한편 10월 19일부터 3일간 “마한, 새로운 천년을 열다”라는 주제로 「제4회 마한문화축제」가 문화행사, 체험행사, 전시·홍보행사, 연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주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마한문화공원

영산강 유역은 수량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벼농사의 최적지이다. 예부터 바다와 접해 있어 고대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마한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마한문화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남해포 일대는 영산강과 바다가 접하는 곳으로 고대문화 교류의 장이며, 바다로 진출하는 관문 역할도 하였던 큰 포구였다.

마한은 기원전 3~2세기에서 기원후 5세기 말~6세기 초에 우리나라 중남부지역,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54개국 이 분포되어 있다가 6세기 중반에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던 잔여세력까지 백제에 흡

수된 고대국가이다.

따라서 마한문화공원은 이러한 마한의 실체를 살필 수 있으며, 역사교육의 체험장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대문화를 거리낌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공원은 크게 전시관, 고분탐사관, 전망대, 남해신사, 농경체험장, 국토미니어처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은 마한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영상을 보는 영상실, 마한의 영역변화를 축소 제작한 모형, 삼한의 신을 모시던 장소인 소도를 상징화한 홀 등이 있다.

고분탐사관은 옹관고분 내부의 부장품과 시신의 매장형태를 모형으로 연출하였으며, 전망대는 동일 옹관고분 문화권인 영산강 건너 무안과 나주까지 살펴볼 수 있다.

소혜왕후 514주기 기신제 제향 봉행

양력 10월 20일 셋째 토요일, 서오릉 경릉에서



제례 봉행 후 기념촬영 <사진:원교>

덕종대왕비(德宗大王妃)인 청주한씨 소혜왕후(昭惠王后 · 1437~1504 · 14世)의 제514주기 및 덕종대왕 제561주기 기신제 제향이 지난 10월 20일(토) 정오 경기도 덕양구 용두동 서오릉(西五陵)내 경릉(敬陵)에서 문화재청 주최,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주관, 고양시 의회 및 고양문화원 후원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우리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춘회회장(공안공하 충정공파)이 아헌관으로 제례를 봉행했으며 서원군파문중에서 김수희장, 만교회장 등 20여명의 후손들이 참사를 하였다.

인수대비(仁粹大妃)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소혜왕후는 세조(世祖) 때 좌의정을 지낸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諱 확(確)의 따님으로 세조가 대군(大君)으로 있을 때 도원군(桃原君)의 신분으로 있던 덕종과 결혼했으며,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왕으로

즉위하고 도원군이 세자(世子)로 책봉되자 19세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2년 뒤 세조 3년 9월에 세자인 덕종이 급환으로 별세하자 소생인 아들 성종(成宗)이 왕위에 올랐다. 이후 성종 2년 부군이 덕종대왕(德宗大王)으로 추존(追尊)되면서 소혜왕후도 인수대비로 진봉(進封)되었다. 당시 여성으로서 드물게 한문과 유교경전에 능통하였으며 불교에 귀의함이 두터워 범(梵)한(漢)국(國)삼자체(三字體)의 불서(佛書)와 조선시대 사대부 여인들의 수신서이자 여성교육의 기본서로 부녀자의 예의범절을 가르친 내훈(內訓)을 저술하였다.

일반적으로 능은 앞에서 보았을 때 왕은 왼쪽, 왕비는 오른쪽으로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나 이와는 반대로 조성되어있는 경릉은 사적 제198호,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지역회장단협의회 3차회의 개최

현안 논의 및 유적지 등 탐방



총장공 한백록장군 묘소 참배기념

전국 광역시·도 회장단협의회(회장 갑수)는 지난 9월 8일 갑수회장을 비롯하여 명수, 광수, 기천, 동경, 태락회장 등 12명

는 등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차기 회의는 12월 대구에서 개최기로 결의하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富平李氏進士公派 齋室[崇慕齋] 探訪記

霞江 韓昌燮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봉오대로(8차선)변 아나지 삼거리에 수년전 웅장한 한옥건물이 신축되었다. 지나면서 무슨 용도인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을 하던 중 오늘 먼 길을 돌아서 탐방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富平李氏進士公派 齋室[崇慕齋] 이었다.

富平李氏의 始祖는 忠敏公(諱 希穆)으로 高麗 太祖를 도와 統合 三韓 三重大匡壁上功臣으로 勳錄 되었으며 進士公(諱 達)은 始祖 忠敏公의 十五代孫이다.

道路에서 높은 階段을 올라가서 外三門인 追遠門을 들어서면 本館인 崇慕齋이다. 넓은 垞地와 雄壯한 崇慕齋의 모습에 感歎하였다. 準備한 카메라로 庭園에 있는 頌德碑를 촬영하는데 管理人이 나와 親切하게 事務室로 案内하여 一層으로 들어갔다. 뜻밖에도 一層事務室은 常勤 事務員이 있는 進士公派의 宗中事務室 및 會議室이었으며 큰 規模에 다시 한 번 感歎하였다.

관리인은 飲料水와 貴重한 冊子 富平李氏進士公派來歷(先代 遺事와 派譜), 家禮寶鑑 두 卷을 주셔서 名門家의 齋室에서 뜻밖의 환대(歡待)를 받고 感謝하게 생각하며 歸家하여 精讀中이다. 管理人을 따라 二層으로 올라가니 이곳은 進士公의 尊影과 龕室(龕室: 位牌를 모신곳)이 있는 祭廳(祭廳)이다. 室內은 高級스러운 陸松으로 裝飾되어 古風스럽고 數百名이 參祀할수 있는 肅穆한 崇慕齋의 核心 祭廳(祭廳)으로 名門大家의 추원보본(追遠報本)을 斟酌할 수 있었다.

이곳 桂陽區 曉星洞 山64番地 一帶는 林野였으나 桂陽區에서 西區 佳亭洞을 거쳐 淸라신도시로 가는 道路가 新設 擴張 되

면서 道路用地로 수용(收用)되면서 道路邊은 建築이 可能케 되어 齋室과 建物이 數個棟 建築되었다고 한다.

探訪所感은

첫째로 宗財를 基盤으로 肅穆한 齋室과 崇慕敦親하는 모습이 참으로 模範的이며 부러운 마음 간절하였다.

두 번째는 始祖 忠敏公(諱 希穆)은 高麗開國功臣으로 吾韓의 始祖府君이신 威襄公(諱 蘭)과 同時代(1100餘年間)인데 2015年度 人口統計에 富平李氏는 男:3,422名 女:3367名 合計 6,789名이다.

吾韓은 752,689명으로 같은 期間에 百倍가 더 많이 繁昌하였으니 우리는 祖上의 蔭德으로 福 받은 後裔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富平李氏 進士公派는 數千名에 不過하며 進士公 後裔 中에 65歲 以上 族親에게는 每月 200,000원씩 支援을 한다고 하니 이러한 宗中이 全國에 또 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 財源은 建物 賃賃料로 充當한다고 한다.

拙筆이 富平李氏進士公派 宗中에 缺禮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老過客을 親切히 歡待하신 管理人께 感謝드리고 富平李氏進士公派 宗中の 繁榮과 宗員諸位의 健勝을 祈願합니다.

(편집자 註 - 筆者는 前인천시종친회장임)



부평이씨 진사공파 재실(송모재)

청한예학회 정기총회 및 편찬위원회 개최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시조세향 분방 등 논의

추태회장, 제례의 표준 정립 및 위선사업 등 종사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청한예학회(회장 만춘)는 지난 9월 12일 오후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의구부회장, 범구총무 등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 및 실적보고에 이어 지난 1년간의 세입·세출 결산(안)과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 채택한 후 무술년 시조부군 세향봉행을 위한 분방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추태중앙회장은 청한예학회 조직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청주한문의

제례를 표준화 정립하고 훌륭한 선조님의 위훈을 발굴 선양하는 등 위선사업은 물론 종사운영에도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중앙회에서도 큰 관심과 성원을 이어가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지난 10월 10일에는 편찬위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서편찬 원고 자료의 교정과 규약 개정 및 조직 강화, 무강왕릉의 발굴에 관한 사항 등 현안 논의에 이어 무술년 시조부군 세향봉행을 위한 분방을 협의하고 제례봉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20회 「2018 만해축전」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열려

“화합과 전진”을 주제로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만해의 사상과 정신을 선양

“한용운 선사는 청주한문의 위대한 선각자”



제22회 만해대상 시상식

만해대상은 세계 각국의 저명한 인사들에게 시상될 만큼 국제적 대상으로 평가

청주한문의 위대한 선각자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 1879~1944) 선사(禪師)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는 「2018 만해축전」이 지난 8월 11일부터 4일간 강원도 동국대 만해마을캠퍼스 및 인제군 일원에서 국내외 저명한 문인, 학자들과 수많은

시민,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과 전진”을 주제로 젊은 세대에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등 만해정신 선양과 새로운 가치창조에 취지를 두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는 선사, 시인, 독립운동가로 일생을 조국독립과 겨레사랑으로 일관, 20대 중반에 백담사로 출가 승려가 된 후 한국불교의 개혁과 대중화를 주창한 「조선불교유신론」을 펴내는 한편 시·소설 등의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개혁과 정신개혁을 주도하면서 1926년 88편의 시를 모은 그 유명한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 생명사상·사랑의 철학을

겨레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 참여해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나 애석하게도 조국의 광복 1년 전인 1944년 6월 29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尋牛莊)에서 별세했다.

비록 만해는 갔으나 그가 별세한지 74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그의 자유사상, 평등사상, 민족사상, 평화사상은 여전히 소중한 민족사적 덕목이 되고 있다.

만해축전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강원도, 인제군, 조선일보사 공동주최로 지난 1999년 백담사에서 시작된 후 2003년부터는 백담사 인근 6,600㎡의 부지에 광활하게 마련된 만해마을에서 해마다 다양한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 백일장, 서예대전, 시인학교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거행되고 있다.

12일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되어 올해로 22회를 맞는 ‘만해대상’은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로 세계 각국의 국가원수들과 노벨상 수상자, 국제기구의 대표 등 저명인사들에게 시상될 만큼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의 평화대상인 대만 불교 민간 구호단체인 “자제 공덕회”를 비롯 실천대상을 수상한 조병국 홀트아동병원 명예원장 등 그동안의 수상자는 백수십명에 이르고 있다.

2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도 유심작품상 시상상을 비롯해 만해 74주기 추모행사, 학술행사 및 경연대회, 지역대동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만해 한용운선사 생가 8월의 현충시설로 선정



만해 및 만해생가 <사진 보훈청>

충남 서부보훈지청

충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종덕)은 제 73주년 광복절과 한용운선사의 탄신일(8

월 29일)을 기념하며, 8월 우리고장 현충시설로 만해 한용운선사 생가(충남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 318번길 83)를 선정하였다.(사진 참조)

만해 한용운선사 생가는 1992년 쓰러져

없어진 터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사적화하여 복원하였으며 사당, 기념관 등을 함께 건립하여 현장체험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만해 한용운선사는 일제강점기 불교 개혁을 주도한 승려이자 <님의 침묵>, <나룻배와 행인> 등을 창작한 시인이며,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이다.

한용운선사 탄신 139주기

「제23회 만해추모제」

생가지 일원에서 개최

지난 8월 29일 만해 한용운선사 탄신 139주년을 맞아 선사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면서 선사의 정신을 선양하고 추모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애환심을 심어주고자 홍성문화원이 주최하고 홍성군, 충남, 충남서부보훈지청 등이 후원하는 제23회 만해추모제가 홍성에 위치한 생가지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청주한씨보」는 한씨일가들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가 게재될수록 유익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종파와 각 지역종친회의 행사, 임원 교체 등 인사동정, 한씨에 얽힌 정보, 일가들의 선행과 효행 등에 관한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기사에는 관련인사들의 이름, 행사일과 장소, 행사내용 및 동정(動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련 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 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보 편집실>

운영회비(7~9월) 단위:원	
이 름	금액
갑수 명예회장(전 중앙회장)	2,000,000
동완 부회장(참판공파회장)	1,000,000
상기 부회장(참의공파 회장)	1,000,000
유광 부회장(찬성공파 회장)	1,000,000
철호 부회장(삼재관리위원장)	1,000,000
상우 부회장(세마공논산종중회장)	500,000
장훈 부회장(충북도회장)	500,000
기호 고문(인천 남동구)	200,000
화갑 고문 (서울 마포구)	200,000
희천 고문(전남 영광군)	200,000
기환 자문위원(서울 용산구)	200,000
대현 자문위원(서울 강북구)	200,000
만우 자문위원(대전 서구)	200,000
복섭 자문위원(전남 강진군)	200,000
상기 자문위원(인천 서구)	200,000
천석 자문위원(인천 남구)	200,000
혁동 자문위원(광주 동구)	200,000
근준 운영위원(참의공파총지공파회장)	200,000
기수 운영위원(전주시회장)	200,000
두석 운영위원(익산시회장)	200,000
상욱 운영위원(고창군회장)	200,000
상웅 운영위원(서울 강남구)	200,000
석도 운영위원(경기 남양주시)	200,000
기성 이사(서울 종로구)	100,000
기중 이사(세마공논산종중)	100,000
길진 이사(광주 동구)	100,000
대석 이사(경기 의정부시)	100,000
동희 이사(광주 서구)	100,000
백웅 이사(서울 영등포구)	100,000
병두 이사(경기 안성시)	100,000
상관 이사(대구 달서구)	100,000
상기 이사(전남 영광군)	100,000
상복 이사(충북 충주시)	100,000
상호 이사(대전 서구)	100,000
성욱 이사(서울 강북구)	100,000
세동 이사(세마공논산종중)	100,000
연수 이사(전남 영광군)	100,000
우석 이사(전남 영광군)	100,000
용석 이사(전남 영광군)	100,000
의전 이사(경기 양평군)	100,000
인희 이사(경기 고양시)	100,000
임동 이사(경기 남양주시)	100,000

재수 이사(전남 영광군)	100,000
재운 운영위원(광주 북구)	100,000
재환 운영위원(광주 광산구)	100,000
종인 이사(중앙회 도유사)	100,000
총희 이사(광주 서구)	100,000
태진 이사(경북 구미시)	100,000
황 이사(경기 고양시)	100,000
합 계	12,800,000

개인정보비(7~9월) 단위:원	
이 름	금액
대현 자문위원(서울 강북구)	100,000
근준 운영위원(참의공파총지공파회장)	100,000
상길(서울 강남구)	100,000
유태(전남 담양군)	100,000
기덕(강원 춘천시)	50,000
무산 이사(서울 관악구)	50,000
상욱 운영위원(고창군회장)	50,000
태진 이사(경북 구미시)	50,000
규상(경기 김포시)	30,000
규성(인천 계양구)	30,000
석우 운영위원(용인시회장)	30,000
성두(울산 북구)	30,000
갑준(서울 성북구)	20,000
기호 고문(인천 남동구)	20,000
대석	20,000
동완 부회장(참판공파회장)	20,000
면희(서울 서초구)	20,000
명교(서울 중구)	20,000
명희(광주 서구)	20,000
상관 이사(대구 달서구)	20,000
상기 부회장(참의공파 회장)	20,000
상락 이사(서울 동작구)	20,000
상진(충남 태안군)	20,000
상철	20,000
선희(대전)	20,000
순석(경기 오산시)	20,000
승욱(광주 북구)	20,000
애삼(서울 서초구)	20,000
인희 이사(경기 고양시)	20,000
장수(경기 고양시)	20,000
정동(경북 구미시)	20,000
판경(대구 달서구)	20,000
성명, 주소불명	20,000
합 계	1,140,000

일반찬조헌성금(7~9월) 단위:원	
이 름	금액
25세문숙공휘익모종중(춘희)	200,000
합 계	200,000

장학금 납부내역(7~9월) 단위:원			
고유번호	이 름	금액	누계
2212	우동	50,000,000	50,000,000
933	국산공단위장학회(길수)	19,000,000	130,000,000
1843	인원(세마공) 충남 논산	500,000	2,000,000
1867	진명(제마공) 충남 논산	450,000	2,000,000
892	기덕(강원 춘천시)	50,000	70,000
728	희수(경기 고양시)	30,000	370,000
1730	선우(강원 강릉시)	10,000	610,000
2188	지민(대구 달서구)	10,000	250,000
합 계		70,050,000	

장도공파 하다리종친회원 선조묘 벌초작업



벌초를 마치고 기념촬영 <사진:대석>

장도공파 하다리종친회(회장 윤석) 윤석 회장을 비롯 대석일가 등 남녀노소 회원 30여명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2일 장도공(諱 致義)예하 16世 수온(守溫 · 通訓大夫 振威縣令)공 선조 등의 선산 묘소를 찾아 벌초작업을 하였다.

이들 회원들은 매년 선조의 벌초작업

과 문중의 대소사를 함께하면서 송조를 실천하고 화합을 다짐으로서 젊은 후손들은 물론 타 성씨 문중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벌초작업을 마친 후 오는 11월 8일 시조부군 세향봉행일에 다수가 참사할 것을 독려하였다.

모범종인

회양공파종중 한규아(韓圭鋹)일가

김포에 거주하는 규아일가는 회양 공파종중의 제전이사로서, 배우자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만 하는 등 집안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색 없이 종사를 우선시하며 적극적인 봉사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입향조 묘 주변의 나무뿌리 캐기, 종중 봉안당 확장 공사와 400개에 이르는 내부의 문짝 교체, 주차장 조성, 묘역 앞 계곡 메꾸기 작업 외에 재실과 봉안당을 찾는 일가분들의 예고 없는 방문에 따른 응대

등으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특히 올 여름은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고사되는 잔디를 살리기 위해 수시로 살수를 하고 잡초제거와 벌초작업 등 헌신 노력으로 중시조 및 예하 선조묘역을 최상의 상태로 조성하고 유지토록 하였다.

이렇듯 집안일을 뒤로 미뤄 농작물의 저조한 수확을 감수하면서 종사 일을 내일보다 우선시하며 헌신함으로써 문중의 귀감이 되고 있는 규아일가를 모범종인으로 추천하고 소개드린다.

<추천인 회양공파회장 한규백>

성원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송금 및 납입시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부탁드립니다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안내

- 회비 · 헌성금 · 종보대 -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족보구입 · 수단금 -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장학기금 출연 - 국민은행 009-25-0015-377 재단법인청한장학회

2018년도 무술년 고려대전 대제 봉행

청주한문의 선조 여섯 분 위패 봉안

始祖 威襄公 · 思肅公 · 西原君 · 文敬公 · 恕齋公 · 夢溪公



양력 10월 15일,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고려대전에서

2018년도 고려대전(高麗大畵) 대제가 지난 10월 15일(월요일) 오전 11시 제12 회째를 맞이하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에 위치한 고려대전에서 성 · 충헌공열사(聖 · 忠賢功烈士)의 공훈을 추모하고 국태민안과 통일을 기원하는 전국의 유림단체 및 대전에 봉안된 성(姓)씨 문중 대표와 기관단체, 시민을 포함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단법인 고려선양회 주관, 향교 유림 집전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고려대전에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을 비롯한 34위(位)의 고려 역대왕과 100여

성씨 문중의 고려조의 충신(忠臣) · 공신(功臣) 300여위의 위패(位牌)가 봉안(奉安)되어 있는데 우리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시조 위양공(始祖 威襄公 · 諱 蘭), 사숙공(思肅公 · 諱 渥 · 9세), 서원군(西原君 · 諱 方信 · 10세), 문경공(文敬公 · 諱 脩 · 11세), 서재공(恕齋公 · 諱 戴 · 11세), 몽계공(夢溪公 · 諱 哲沖 · 13세) 등 여섯 분 선조의 위패가 동배향위(東背向位) 화열(火列) 42~47에 모셔져 있다.

고려대전은 고려 500년 역사와 문화를 재현 재조명하고 통일의 의지를 되살리고자 착공 12년만인 지난 2007년 8월 준공식을 가졌으며 4만 1,200㎡의 부지위에 건립되었다.

뿌리공원내 청주한씨 조형물

100만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는 대화합의 의미를 상징



◆ 작품명 : 창조(創造)

청주한씨를 상징하는 뿌리공원 내 조형물의 작품명은 창조이다.

휘(諱) 란(蘭) 시조의 음덕으로 100

만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는 대화합의 뜻과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청주한씨는 기자조선(箕子朝鮮)에서 기원하는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성씨이다.

따라서 인지(人智)가 발달하는 초기 과정에서 부족사회로부터 점차 가족 사회로 변천하는데 우선은 이성(異性)의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바, 본원적인 형태를 형상화한 것이다.

◆ 조각상 기재내용

청주한씨는 고조선 기자(古朝鮮 箕子)로부터 계출(系出)된 마한왕조(馬韓王朝)의 후예로서 단일성씨로는 네 번째가 되는 명문거족이다.

시조는 한란(韓蘭)이니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에서 탄생하시어 청주시 방서동에 정착, 고려 개국공신으로 벼슬이 문하태위(門下太尉 · 고려조 최고관직으로 현 국무총리격임)에 오르셨으며 시호(諡號)는 위양공(威襄公)이다.

‘뿌리를 찾자’ 제10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성황리에 개최

대전 뿌리공원에서「자연 속 효통 놀이세상」주제로



청주한씨 조형물을 살펴보고 개수추진 방안을 논의 하였다.

「자연 속 효통 놀이세상」이라는 주제로 제10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지난 10월 5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뿌리공원에서 전국 성씨 문중자손과 관람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미있게 효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 등으로 3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문중입장 퍼레이드는 태평 Kong레이의 북상에 따른 우천으로 문중에 자율선택으로 참여를 맡겼지만, 참여 취소가 거의 없이 160여개, 4천여 명의 성씨 문중의 자손들이 각 문중을 상징하는 성씨깃발을 앞세우고 문중별로 상징되는 대표위인의 분장과 특색 있는 전통 복장을 갖추고 취타대와 함께 퍼레이드를 펼쳐 조상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많은 불거리로 축제의 장관을 이룸으로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중앙회에서 추태회장, 만교부회장, 원교, 일용이사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지역종친회장과 임원, 대전시종친회에서 갑수회장을 비롯한 50여 명 등 전체 80여 명이 참석하여 3연속 국무총리 배출이라는 현수막을 앞세워 관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37번째로 입장하였다. 입장식 후 추태회장은 청주한씨 조형물을 함께 둘러보면서 조형물 수립에 대한 경과와 현재 새로이 조성한 성씨문중의 조형물과 대비가 되고 오랜 세월경과로 보수가 필

요한바 금번 공모를 통해 명문 청주한씨를 상징하는 새로운 조형물로 개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한문 종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도 나누는 등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함께 하였다.

세계 유일의 성씨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뿌리공원은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 1997년 11월 1일 개장한 가족친화 테마공원이며 도심 속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는 충효(忠孝)의 산 교육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125,000㎡의 면적에 244개의 성씨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 성씨문중에서 기증한 족보 등 사료를 전시하고 있는 한국족보박물관은 조상의 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종친간의 단합과 만남의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3일간의 뿌리축제는 개막행사, 문중행사, 문화행사, 전통행사 등 가족과 효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펼쳐졌으며, 1000명분의 효통비빔밥, 안중근의사의 충정을 노래한 영웅의 효, 전국 효문화 청소년 페스티벌, 3대가족 퍼레이드해효, 효 세족식 등다양한 행사로 펼쳐져 참가자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가족간의 사랑과 효(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주한씨 조형물 개수 디자인 공모

대전 뿌리공원에 수립된 청주한씨조형물 개수(改整)를 위한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종현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조형물 디자인

△ 규격 : 1.5m(W) x 1.5m(L) x 3.0m(H) 내외

△ 조감도 (약식)

△ 디자인 상징 및 의미 해설

2. 기한 : 2018년 11월 말 (1차)

3. 제출처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사무실 (02-720-6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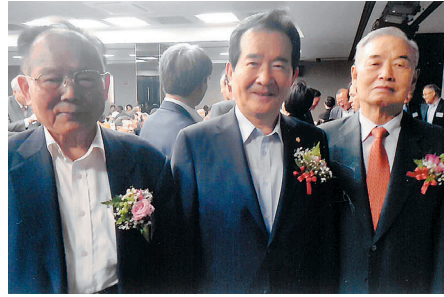
중앙종친회장 동정

승수총리 및 정세균前국회의장 예방, 환담

종사 현안 및 발전방안 논의



중앙종친회 추대회장은 지난 9월 13일 승수총리를 예방하고 종사 현안과 장학사업 활성화 방안 등 종사발전을 위한 의견과 환담을 나누었으며(사진 좌측), 9월 7일에는 재경익산향우회 세종문화회관 행사장을 찾아 정세균前국회의장(사진 우측 중



양)을 예방한 자리에서 익산 무강왕릉 발굴조사에 관한 관심과 성원 당부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과 환담을 나누었다.

정전의장은 외가가 청주한문으로서 많은 관심을 표하였으며 길수서원군파회장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한치문 공적비 및 한필동 공훈비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및 안내판 설치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Memorial Monument designated by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한치문 공적비 및 한필동 공훈비
Monument in memory of Chi-Moon Han and Pil-Dong Han

관리번호 Administration no. 43-1-166

관리자 Administrator 청주한씨 병사공파 종중
Family of Byungseong branches of Clan Chongha Han (南興韓氏 兵忠公派)

소재지 Location 정남 1로 44번길 5-22
5-22, Seongnam-ro 44 street, Ulsan-city, Gyeongsang Province

● 한치문(韓致文) 선생(1852년~1908년)은 의병대장으로 활약, 삼강, 하동, 산청, 진주 일대에서 일제와 맞서 싸운 진주지역의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 강렬하게 펼쳐지며, 특히 항일투쟁의 군자금 모집책을 맡아 큰 공을 세웠다. 일제 관공서, 일본경찰주재소, 우체국, 약집 진일파의 집을 여러차례 습격하여 불태우고, 관급품들을 노획하고, 일본경찰과 수차례 격전하다가 1908년 5월 18일(56세)에 피살되어 순국, 정부에서는 2004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한필동(韓弼東) 선생(1888년~1953년)은 대한제국의 因山남에 참석하고 고종 황제 삼가로 돌아와 3월 18일 '삼가장리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먼저 단상에 올라가 '朝鮮獨立圖'라고 쓰인 깃발을 휘두르며 '대한독립만세'를 높게 외치며 민중의 독립의욕을 북돋우고, 민사부소, 일본주재소, 우체국을 불사르고 부렸다. 이에 한필동선생이 '삼가장리 만세운동'을 진주지휘관 필리로 당일 재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6개월 옥고를 치렀다. 출옥한 뒤로 국가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함을 몸소 느껴, 1921년 '구유외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의 책임을 맡아 청년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켰다. 이후 학교에서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학교를 폐쇄하자 선생과 가족이 만주로 옮겨가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가족을 잃고 백방후 홀로 귀국하여 6·25전쟁 중 별세하였고, 정부에서는 200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17년 현충시설로 지정하였다.



문정공하 병사공파종중(경남 진주)의 독립유공자·애국지사인 한치문 공적비와 한필동 공훈비가 지난해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받은 이래 지난 7월 현충시설에 대한 안내 입간판이 설치 완료되었다.

또한 현충시설 결연학교와 함께하는 보훈현장 탐방활동지로서 관내 학생들로 하여금 보훈정신을 배우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탐방학습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서 청주한문의 명예와 위상을 선양하고 있다.

무농 서화대전이 무농정(용암동)에서 전시됩니다.

시조부군 및 4위선조 세향 참사 후 많은 성원과 참관바랍니다.

장학기금 출연기념비를 시조묘역에 새로이 수립합니다!

100만원이상 출연한 일가는 기념비에 각명하여 기록유산으로 보존됩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후손들에게 기리 남기시기 바랍니다

알 림

1. 시조탄생유지 「淸韓閣」은, 주말(週末)에는 삼문(三門)이 열려있으나 주중(週中)에는 내부 시설물의 보안상 관계로 잠겨 있습니다.
2. 따라서 「淸韓閣」을 주중(週中)에 참배, 참관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전날 저녁때나 당일 이른 아침 <043-742-4982>로 현지 관리인 김승수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삼문을 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正史)기록 고찰(考察)로 본 익산 무강왕릉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卷)二十四 충숙왕(忠肅王) 十六年조에

三月 盜金馬郡 馬韓祖 虎康王陵 捕擊典法司 及賊逸 政丞鄭方吉 欲劾典法官 贊成事林仲沈 沮止曰『賊擊 獄二年 無賊而死者多矣』方吉日 告知發塚人多 林仲沈 慙志

三月 도적이 금마군에 있는 마한조상 호강왕(무강왕)의 능을 파헤쳤음으로 이를 잡아 전법사에 넘겼는데 달아나버렸다. 정승 정방길(정방길)이 전법관을 탄핵하고자 하니 찬성사 임중언이 막으면서 “도적이 옥에 갇힌지 2년에 드러난 장물은 없고 죽은자가 많습니다”하였다. 정방길이 “무덤을 판 사람이 금이 많은 것을 본시 알았다”하니 임중언이 부끄러워하고 성내었다 하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三十三 十九 익산군(益山郡) 二十<建置沿革>

本馬韓國

後朝鮮王箕準子四十一代孫也 避衛滿之亂浮海而南至韓地 開國仍號馬韓 至百濟始祖溫祚王并之自後號金馬渚新羅神文王改金馬郡至高麗屬全州忠惠王後五年以 元順帝皇后奇氏外鄉陞爲益州本朝

<郡名>馬韓 益州

<佛宇>彌勒寺

在龍華山 世傳 武康王既得人心立國馬韓一曰王與善花夫人欲幸獅子寺 至山下大池邊

三彌勒出現 池中夫人謂王曰願建伽藍於此地 王許之詣知命 法師問填池術師以神力一夜 顏山填池乃創佛殿又作三彌勒像新羅眞平王遣百工助之有石塔極大高數大東方石塔之最

○ 權近詩窓外青山似削成愁時舉目轉分明秋風日日吹巾杖欲上高岑望玉京

<古跡>雙陵

在五金寺峯西數百步 高麗史云 後朝鮮 武康王 及 妃陵也 俗號 末通大王陵一云 百濟武王小名薯童末通即薯童之轉

金馬山

甄萱云昔馬韓先起赫世勃興辰卜從之而興於是百濟開國金馬山 六百餘年

○ 今按溫祚并馬韓 後稱其地爲金馬渚而不稱金馬山且金馬郡末嘗爲百濟所都 萱之言未知所據箕準城

在龍華山上俗傳箕準所築故名焉石築周三千九百尺高八尺有溪有泉井

본 역사에서 전라도, 본마한국, 금마, 익산

<미륵사> 도 세전에는 무강왕(武康王)의 입국마한

<고적> 『쌍릉』고려사에 후조선 무강왕과 비릉이라 하였고

<금마산> 조에 백제소도 견훤의 말이 있다

<고려사절요 권二十四 충숙왕十六年 마한> 조 무강왕릉(명확한 무강왕으로)

시조 태위 위양공부군 무술년 세향 공고

“당일 참사하시는 일가분들께 중식을 준비해 드립니다”

- ◆ 일 시 : 2018년 11월 8일 (음력 10월 1일 · 목요일) 오전 11시
- ◆ 장 소 : 시조부군 묘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47번지)
- ◆ 의 레 : 시조 세향, 4위단 (2 · 3 · 4 · 5세조) 세향 봉행
- ◆ 참석범위 : 국내외 거주 청주한씨 남녀노소 전 증원
- ◆ 식전행사 : 중앙회장 인사, 내빈 축사

[대중교통 이용 안내]

청주시 가정동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미원행 또는 문의행 버스를 타고 고은삼거리에서 하차하여 대청댐 방향으로 약 200m 걸어가면 암석에 『청주한씨 시조부군 묘소 입구』라고 새겨진 입석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1km정도 이동하여 공군비행장 정문 앞에 오시면 시조부군 묘소가 보입니다. 시조부군 묘역에 도착한 후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세향을 봉행할 수 있도록 안내에 따라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지역은 당일 오전 8시 정각에 중앙종친회 사무실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약도]



(청원-상주 고속도로 문의IC 출구에서 우회전 후 약 4km정도 오시면 시조묘역 표석 앞 삼거리 연결)

관리인 : 010-5779-7507